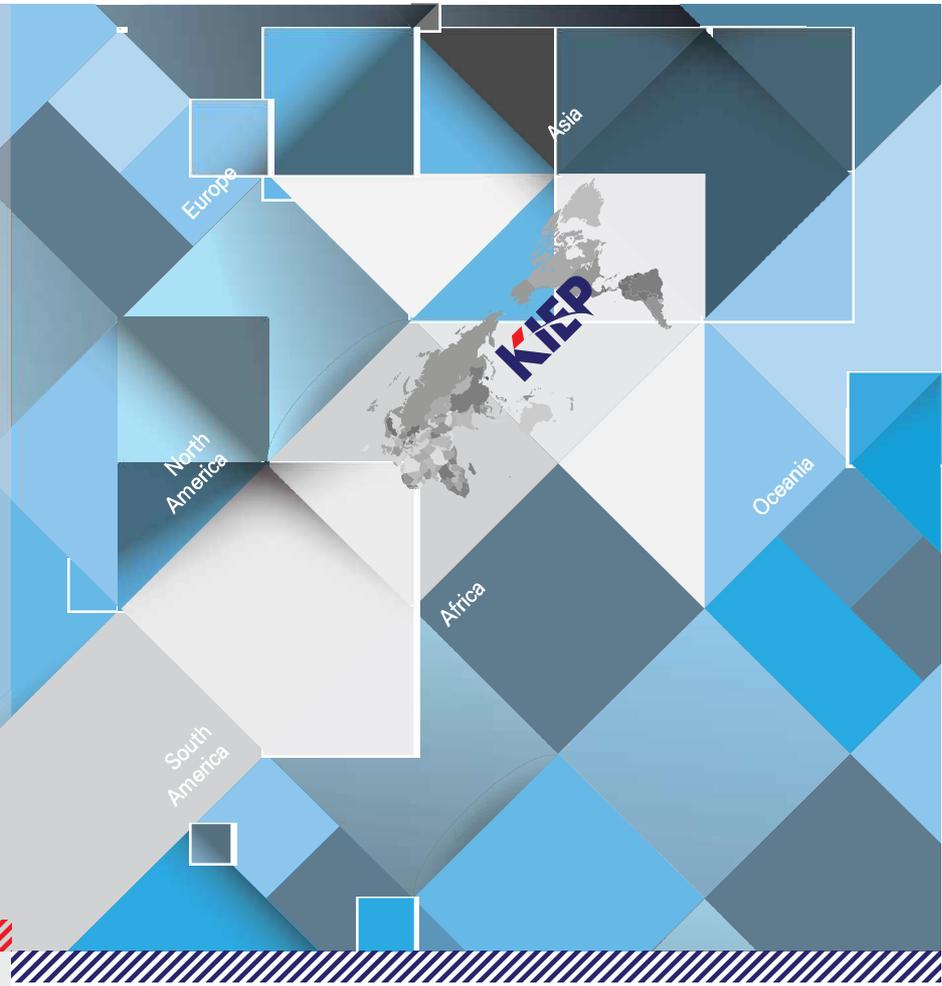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34

2018년 12월 31일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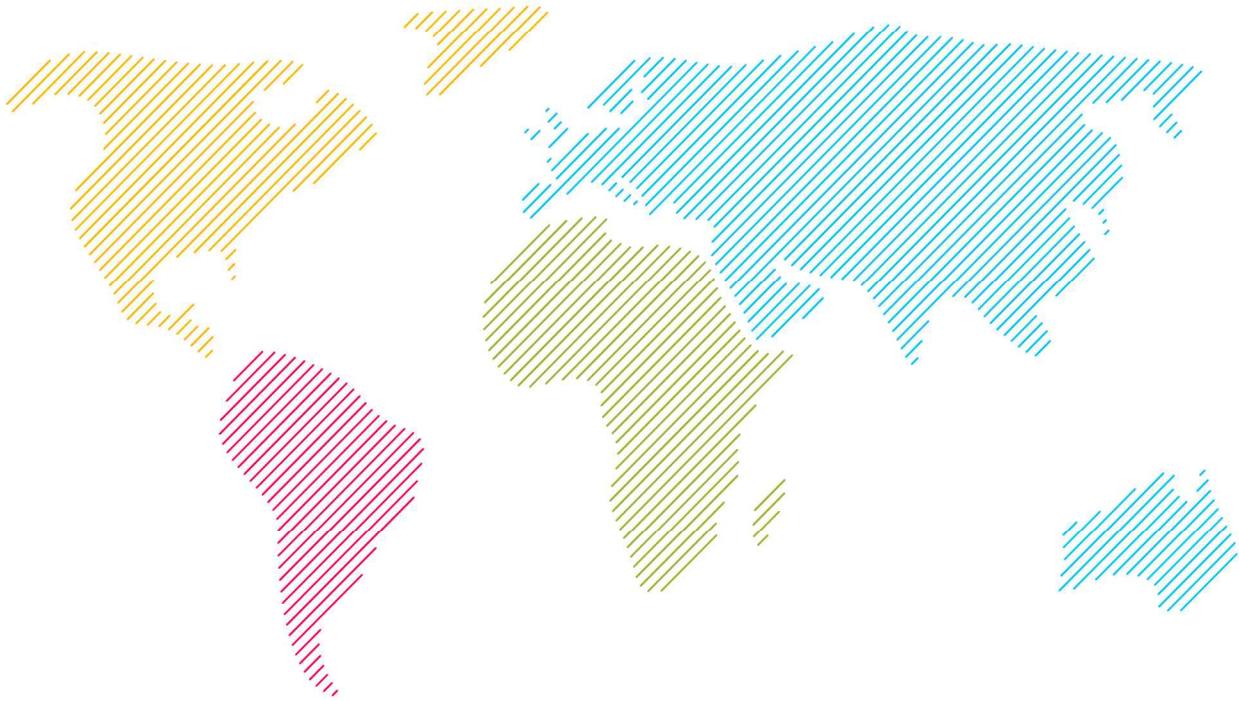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Tel: 044-414-1167)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요약

- ▶ [배경] 북방유라시아 경제권의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코카서스 3국의 경제·산업 분야 현안과제와 주요 발전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과제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한·코카서스 3국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전반에서 미미하나, 이들 3국의 지경학적 잠재력과 산업협력 수요 그리고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 [경제 특징] 대외의존도가 높은 코카서스 3국 경제는 2010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유가, 주변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부진을 보였으나, 2017년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 유가 상승, 공공 부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 국면을 보임.
 - [경제·산업 구조]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채굴업·석유정제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경우 서비스업과 조제 식료품 위주의 경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역]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천연가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광물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 터키, 이탈리아, 중국 등임.
 - [투자] 3국 모두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조지아를 제외하고 FDI 유입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제르바이잔은 채굴업, 아르메니아는 서비스와 제조업, 조지아는 서비스업에 투자가 집중됨.
- ▶ [경제발전전략] 코카서스 3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산업화와 경제다각화를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는 취약한 산업기반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중점 전략으로 추진함.
 -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석유가스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비에너지 부문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함.
 - 조지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및 산업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둬.
 - 이들 3국은 공통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 부문 성장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관광업 등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 [시사점] 코카서스 3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협력과제] △코카서스 3국의 중점 육성 부문에서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모색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분야 협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협력 모멘텀 확보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과 단기·중장기 협력 로드맵 마련 △주변 잠재시장 진출 고려



차 례

1. 연구 배경
2. 코카서스 3국의 경제 현황과 특징
 - 가. 아르메니아
 - 나. 아제르바이잔
 - 다. 조지아
3.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가. 아르메니아
 - 나. 아제르바이잔
 - 다. 조지아
4. 한·코카서스 3국 경제협력 현황
 - 가. 교역
 - 나. 투자
 - 다. 교류·협력
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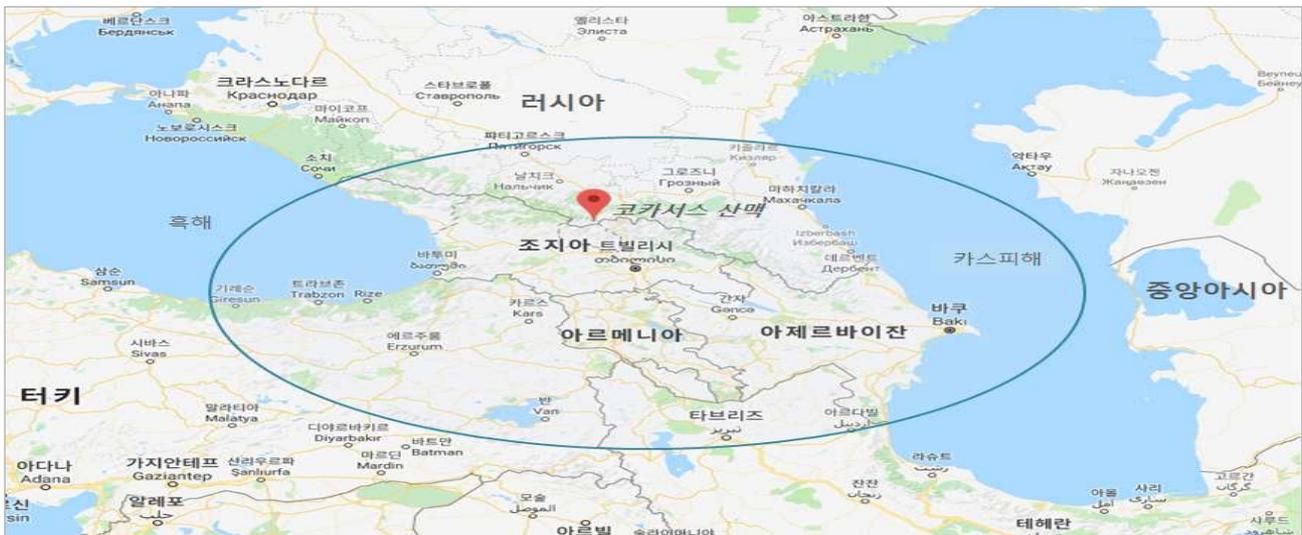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 코카서스 산맥 남부의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코카서스 3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교통물류 잠재력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출산업화와 경제다각화를 추구함에 따라 산업협력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

- 코카서스 3국의 GDP 규모는 2017년 기준 650억 달러, 총 인구 규모는 1,800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와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음.¹⁾
- 아제르바이잔(GDP 400억 달러, 인구 1,000만 명)이 역내 전체 GDP 및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지아(GDP 150억 달러, 인구 490만 명), 아르메니아(GDP 110억 달러, 인구 300만 명)의 경제 규모는 매우 작음.

그림 1. 코카서스 3국의 지리적 위치



자료: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저자 보완(검색일: 2018. 12. 5).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카서스 3국은 지리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 등 전략적 요인으로 지경학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음.
- 이들 3국은 북쪽으로 러시아(인구 1억 4,000만 명), 남쪽으로 이란(인구 8,300만 명), 서쪽으로는 터키(인구 8,100만 명) 등 약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잇는 육교(land bridge)이자, 흑해, 카스피해를 통해 유럽, 아시아와 연결되는 통과회랑(transit corridor)으로서 잠재력이 큼(그림 1 참고).
- 특히 주요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주변국과 유럽에 공급하는 에너지 회랑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고 이런 측면에서 역내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음.²⁾

1) GDP(2017년)는 IMF WEO Database, 인구(2018년 7월)는 CIA Factbook 기준임.

2)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17년 말 기준 70억 배럴(세계 매장량의 0.4%), 생산량은 일일 79만 5,000배럴(세계 생산량의 0.9%)임. 천연가스의 경우 확인매장량이 1조 3,000억 m³(세계 매장량의 0.7%), 생산량은 177억 m³(세계 생산량의 0.5%)로 나타남. 참고로 아제르바이잔은 2017년 기준 터키(63억 m³) 외 기타 유럽(21억 m³), 중동(6억 m³) 지역에 PNG를 수출했음. BP(2018), pp. 12-34; 역내 주요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는 BTC(아제르바이잔 바쿠-조지아 트빌리시-터키 세이한) 송유관, BTE(아제르바이잔 바쿠-조지아 트빌리시-터키 에르주름) 가스관이 있고, 동-서, 북-남 도로 철도 인프라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Stratfor(2018) 참고.

- 이 외에 최근 코카서스 3국이 공통적으로 수출산업화와 경제다각화를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산업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³⁾

■ 한·코카서스 3국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전반에서 미미한 상황이며 상술한 3국의 지경학적 잠재력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코카서스 3국은 북방유라시아 경제권의 중부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역내 가치사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본 연구는 코카서스 3국의 경제 현황과 특징,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3국의 경제산업 분야 현안과 제와 주요 발전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과제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2. 코카서스 3국의 경제 현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 [경제 현황] 세계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경기 둔화를 겪었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아르메니아는 자체적인 성장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수출, 해외송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해외 근로자 등의 송금액이 아르메니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17년 평균 16.5%이며, 해외송금액 중 63.6%(2017년 기준)가 러시아로부터 유입됨.⁴⁾
- 2000년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동반 성장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2014년 대러 경제제재,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음.
- 러시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해외수요와 송금액의 증가, 그리고 국내수요의 증가로 2017년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18년에는 6%, 2019년에는 4.8%로 향후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⁵⁾

3) 자세한 내용은 3장 참고

4) World Bank, Bilateral Remittance Matrix 2017(검색일: 2018. 12. 7).

5) IMF(2018), pp. 25-28, p. 37.

표 1. 아르메니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5.9	14.1	2.2	4.7	7.1	3.3	3.6	3.3	0.3	7.5
명목 GDP(십억 달러)	1.9	4.9	9.3	10.1	10.6	11.1	11.6	10.6	10.5	11.5*
대외부채/GDP(%)	73.6	35.2	63.9	68.6	72.3	78.5	73.6	86.8	86.4	81.4
물가상승률(기간평균, %)	-0.8	0.7	7.3	7.7	2.5	5.8	3.0	3.7	-1.4	0.9*
재정수지(GDP 대비 %)	-	-2.0	-5.0	-2.9	-1.5	-1.6	-1.9	-4.8	-5.6	-4.8*
경상수지(GDP 대비 %)	-15.8	-2.5	-13.6	-10.4	-10.0	-7.3	-7.6	-2.6	-2.3	-2.8*
FDI 유입액/GDP(%)	5.1	5.6	5.4	6.0	4.7	3.1	3.5	1.7	2.9	2.1
수입(상품, 십억 달러)	0.8	1.7	3.3	3.5	3.6	3.8	3.8	2.8	2.8	2.8
수출(상품, 십억 달러)	0.3	1.0	1.2	1.4	1.5	1.6	1.7	1.6	1.9	2.2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0.3	0.7	1.9	1.9	1.8	2.3	1.5	1.8	2.2	2.3
환율(/\$)	539.5	457.7	373.7	372.5	401.8	409.5	415.9	477.9	480.5	4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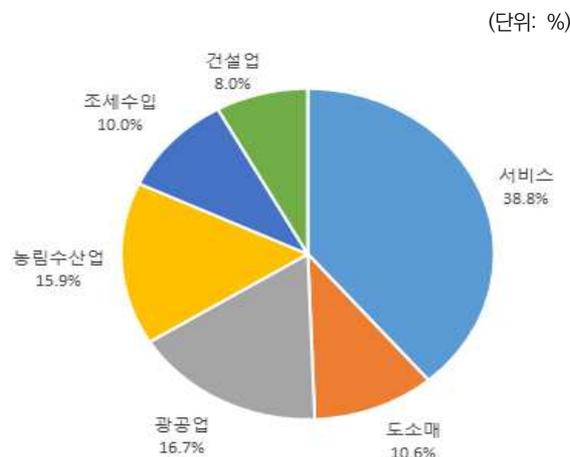
주: * 기관 추정치.

자료: IMF, WEO Database; IHS Marki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2. 4).

■ [경제산업구조] 서비스업(도소매 포함)이 GDP의 절반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과 광공업이 각 15% 내외의 비중을 보임.

- 전체 광공업 생산의 62%가 제조업, 18%가 채굴업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에 달하는 등 경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1차 금속제품 제조가 17%의 비중을 보임.
- 서비스 부문에서는 도소매의 비중이 높고,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은 소규모 가족 농장이 전체 농업 생산의 97%를 담당하는 등 영세한 특징을 보임.

그림 2. 아르메니아의 GDP 구성(2016년)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rmenia(2017), p. 255.

■ [교역] 산악국가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르메니아는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은 러시아임.⁶⁾

- 2017년 전체 교역액의 28%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9.7%로 뒤를 이음.
-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국으로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 등 지역 내 경제적 통합이 심화되면서 최근 교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⁷⁾
 - 2014년 대비 2017년 아르메니아 총 수출 중 러시아 비중은 20.4%에서 25.2%로 증가했으며,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서 29.9%로 높아짐.
 - 러시아로의 수출품은 대부분 주류 및 식료품이고, 수입품은 석유 및 천연가스임.
- 중국과의 교역도 지난 10년간 증가해 2008년 대비 2017년 수출은 0.2%에서 5.5%로, 수입은 9.2%에서 12%로 수출입에서 모두 중국의 비중이 높아짐.

표 2. 아르메니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20.3	1	러시아	25.2
2	독일	17.4	2	불가리아	13.1
3	네덜란드	12.4	3	스위스	11.5
4	벨기에	8.6	4	조지아	6.8
5	조지아	7.3	5	독일	5.9
6	불가리아	5.8	6	중국	5.5
7	미국	4.9	7	이라크	5.5
8	영국	3.9	8	UAE	4.3
9	이탈리아	2.6	9	네덜란드	4.1
10	이란	2.3	10	이란	3.9
상위 10개국 비중		85.6	상위 10개국 비중		85.8

표 3. 아르메니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20.4	1	러시아	29.9
2	중국	9.2	2	중국	12.0
3	우크라이나	7.6	3	터키	5.7
4	터키	6.5	4	이란	4.5
5	이란	4.9	5	독일	4.2
6	미국	4.2	6	이탈리아	3.2
7	오스트리아	3.8	7	우크라이나	3.0
8	이탈리아	3.8	8	미국	2.9
9	독일	3.6	9	스위스	2.4
10	프랑스	3.1	10	조지아	2.2
상위 10개국 비중		66.9	상위 10개국 비중		7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 주요 수출품은 광물자원으로 금속 및 비(卑)금속 광물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음료·주류·담배 등 조제식료품, 귀석·반귀석·귀금속이 수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주요 수입품은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에너지와 기계류임).

6) 폴리브렌 세계 6위, 레늄 세계 5위 부존국이며, 금·은·아연·구리 등의 매장량도 풍부함. 국회사무처(2015), p. 134.

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경제통합체로 201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공화국 5개국임.

표 4. 아르메니아의 주요 수출입품목(2017년)

(단위: %)

	수출			수입		
	HS코드 ⁸⁾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7.9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6.1
2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1.9	84	보일러 기계류	9.5
3	22	음료, 주류, 식초	11.3	85	전기기기, TV, VTR	6.6
4	24	담배	11.1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5.1
5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4.8	30	의료용품	4.7
6	62	의류(편물제 외)	4.4	87	일반차량	3.8
7	72	철강	3.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8
8	74	동과 그 제품	3.6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4
9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3.4	48	지와 판지	2.1
10	94	가구류, 조명기구	1.8	73	철강제품	2.1
		기타	16.0		기타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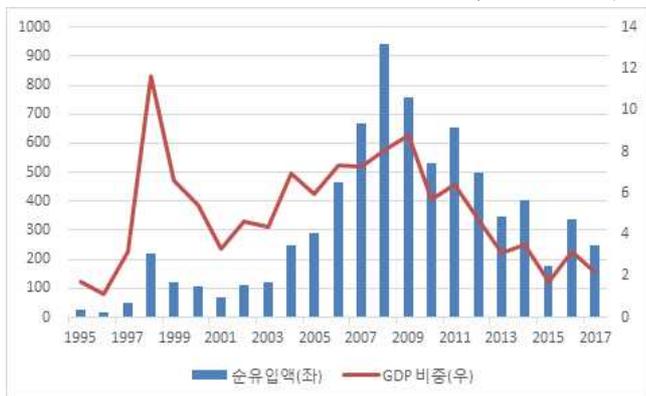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 [투자] 아르메니아로 유입되는 FDI는 코카서스 3국 중 가장 작은 규모로 2017년 기준 약 2억 5천만 달러,⁹⁾ GDP의 2% 수준임.

- FDI 순유입액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최대 투자국이었던 러시아의 투자가 경제제재 등으로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6년 전체 FDI의 43%가 러시아로부터 유입되었고,¹⁰⁾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임.

그림 3. 아르메니아 FDI 순유입액 추이(199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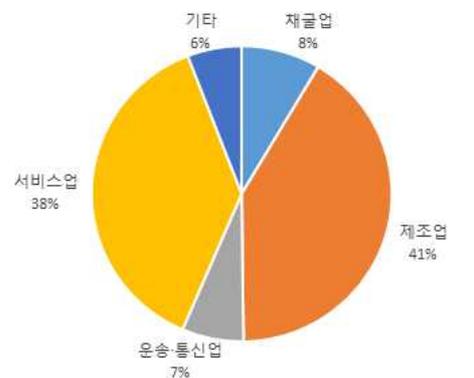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CEIC(검색일: 2018. 11. 14).

그림 4. 아르메니아 FDI 구조(2016년)

(단위: %)



자료: CEIC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검색일: 2018. 11. 14).

8) 본 자료의 HS코드 품목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세계HS 정보 속견표를 참고함.

9) 2017년 기준 FDI 순유입액은 아제르바이잔 약 29억 달러, 조지아 약 18억 달러 수준임.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10) 2016년 기준 FDI 유입액 중 43%가 러시아로부터, 11.8%가 프랑스로부터 유입됨. CEIC(검색일: 2018. 11. 14).

■ [사회지표] 아르메니아의 빈곤율 및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실업률은 코카서스 3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실업률은 취약한 산업기반에 기인한 것으로 빈곤과 해외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함.¹¹⁾
-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중·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5~24세 청년 실업률이 38.6%(2017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 높음.

표 5. 아르메니아의 주요 사회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명목 GNI(달러)	660	1,540	3,470	3,530	3,880	4,120	4,150	4,030	3,770	4,000
빈곤율(%)	55.6 (2001)	26.9	20.5	18.8	17.1	16.2	16.4	13.5	14.1	-
실업률(%)	11.9	16.1	19.0	18.4	17.3	16.2	17.5	18.3	18.0	18.2

주: 빈곤율 하루 3.2달러(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¹²⁾

자료: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나. 아제르바이잔

■ [경제 현황]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은 국내 에너지 산업 발전과 유가 상승에 힘입어 2000년대 초중반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저유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된 이후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2017년에 경제성장률이 소폭 반등함.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자와 유가 상승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유가 하락과 2014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
-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과 활발한 공공 부문 투자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비석유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3.6%의 성장률이 각각 전망됨.¹³⁾

표 6.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6.2	28.0	4.6	-1.6	2.1	5.9	2.7	0.6	-3.1	0.1
명목 GDP(십억 달러)	5.3	13.3	52.9	66.0	69.7	74.2	75.2	50.8	37.8	40.7*
대외부채/GDP(%)	30.1	17.0	13.5	11.1	14.8	13.6	15.7	24.9	37.2	33.1
물가상승률(기간평균, %)	1.8	9.5	5.7	7.8	1.1	2.5	1.5	4.1	12.6	13.0
재정수지(GDP 대비 %)	0.1	2.7	13.8	10.9	3.7	1.6	2.7	-4.8	-1.2*	-1.7*

11) 박정호 외(2017), p. 46.

12) World Bank는 중저소득국의 빈곤선을 하루 수입 \$3.2로 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는 2002~16년까지 중저소득국으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 중고소득국으로 진입함.

13) IMF(2018), pp. 25-28, p. 37.

표 6. 계속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수지(GDP 대비 %)	-3.5	1.3	28.4	26.0	21.4	16.6	13.9	-0.4	-3.6	4.1*
FDI 유입액/GDP(%)	2.5	33.8	6.3	6.8	7.6	3.5	5.9	7.6	11.9	7.0
수입(상품, 십억 달러)	1.5	4.2	6.3	9.9	10.0	11.2	9.3	9.8	9.0	9.0
수출(상품, 십억 달러)	1.9	7.4	25.7	34.0	31.9	31.8	28.3	15.6	13.2	15.2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0.7	1.2	6.4	10.3	11.3	14.4	14.6	6.3	5.8	6.7
환율(/\$)	0.9	0.9	0.8	0.8	0.8	0.8	0.8	1.0	1.6	1.7

주: * 기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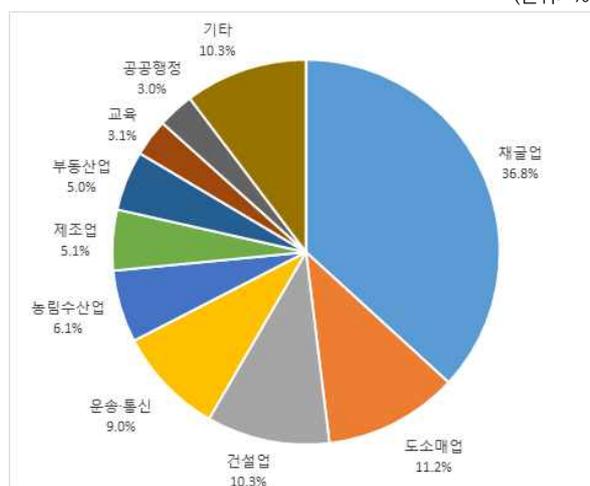
자료: IMF, WEO database; IHS Marki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2. 4).

■ [경제산업구조] GDP에서 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과 2000년대 초중반의 유가 상승에 힘입어 2007년에는 전체 GDP에서 채굴업의 비중이 57.5%까지 확대되는 등 에너지 부문이 아제르바이잔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함.
- 산업 부문만 고려할 경우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과 석유정제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2016년)에 이를 정도로 산업구조가 에너지 부문에 편중됨.
- 석유수출로 인한 외화수익으로 운영되는 국영석유기금(SOFAZ)에 대한 재정의존도도 높아 2017년 기준 정부 세입의 37%가 SOFAZ 전환분임.¹⁴⁾

그림 5. 아제르바이잔의 GDP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검색일: 2018. 11. 14).

■ [교역] 아제르바이잔은 전형적인 자원 수출국으로 에너지 자원이 전체 수출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은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임.

14) SOFAZ(2017), p. 41. 아제르바이잔은 SOFAZ(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를 통해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사회간접 자본이나 비석유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외교부(2014), p. 58.

-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교역국은 이탈리아로 2017년 기준 전체 교역액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터키(11.7%)와 러시아(9.1%), 중국(6.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4개국이 아제르바이잔 전체 교역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 대상국이 편중된 편임.

표 7.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출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이탈리아	40.2	1	이탈리아	31.9
2	미국	12.6	2	터키	9.9
3	이스라엘	7.6	3	이스라엘	4.6
4	인도	5.1	4	러시아	4.3
5	프랑스	4.9	5	체코	4.0
6	스페인	3.1	6	캐나다	3.9
7	인도네시아	3.0	7	조지아	3.4
8	네덜란드	2.8	8	인도네시아	3.4
9	칠레	2.0	9	독일	3.3
10	영국	1.9	10	포르투갈	3.2
상위 10개국 비중		83.2	상위 10개국 비중		71.9

표 8.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입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러시아	18.8	1	러시아	16.8
2	터키	11.3	2	터키	14.7
3	독일	8.4	3	중국	11.2
4	우크라이나	7.9	4	미국	8.3
5	중국	6.7	5	우크라이나	5.5
6	영국	5.4	6	독일	5.4
7	미국	3.7	7	이탈리아	3.6
8	핀란드	3.4	8	영국	3.6
9	일본	3.4	9	이란	2.7
10	카자흐스탄	2.8	10	브라질	2.0
상위 10개국 비중		71.8	상위 10개국 비중		73.8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에너지(HS 27)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계류, 철강제품, 전자기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와 터키로 이탈리아로는 석유와 역청유를, 터키로는 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표 9.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수출입품목(2017년)

(단위: %)

	수출			수입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89.6	84	보일러 기계류	14.9	
2	8	과실, 견과류	2.1	73	철강제품	6.5	
3	7	채소	1.5	85	전자기기, TV, VTR	6.4	
4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0.9	99	기타	5.6	
5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9	87	일반차량	4.8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7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4.3	
7	29	유기화학물	0.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6	
8	52	면, 면사, 면직물	0.4	72	철강	3.6	
9	73	철강제품	0.3	10	곡물	3.3	
10	17	당류 설탕과자	0.3	30	의료용품	2.8	
기타			2.8	기타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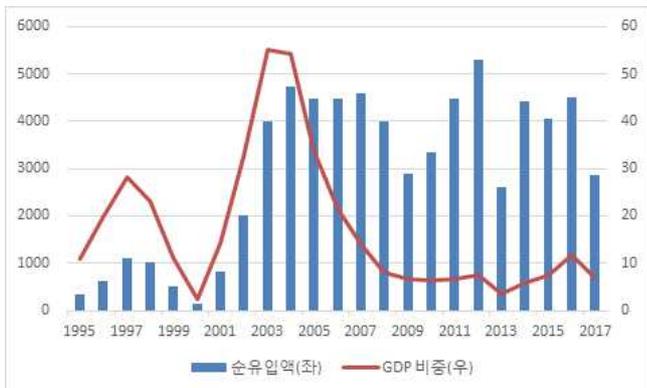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 [투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투자금은 대부분 채굴업 부문으로 유입됨.

- 카스피해 유전 개발과 송유관 건설 등으로 2000년대 초 급격하게 해외자본이 유입되어¹⁵⁾ 2003년에는 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7% 내외의 수준을 유지함.
- 2017년 고정자산에 투자된 해외자금의 약 73%가 채굴업 부문으로 유입되는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높으며, 주요 투자국은 영국, 터키, 국제기구 등임.

그림 6. 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액 추이(199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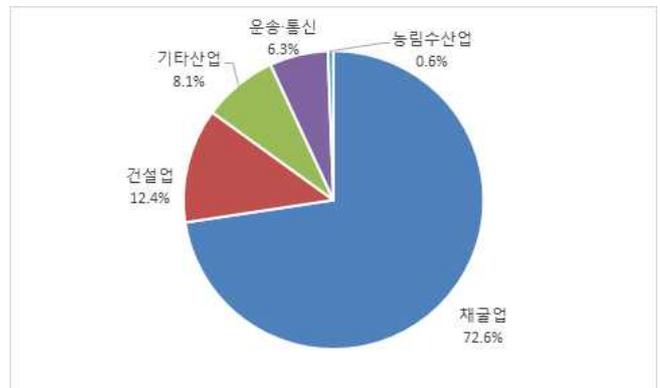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CEIC(검색일: 2018. 11. 14).

그림 7. 외국인투자의 고정자산투자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검색일: 2018. 11. 14).

■ [사회지표] 2014년 이후 1인당 명목 GNI는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으나 빈곤율 및 실업률은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임.

-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했던 1인당 명목 GNI는 경기둔화와 함께 점차 감소해 2017년에는 2014년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반면, 빈곤과 실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석유기금 운영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실업률은 2017년 기준 아르메니아 18%, 중앙아시아(고소득국 제외) 6.6%, 2016년 기준 조지아 11.8% 수준임.¹⁶⁾

표 10.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사회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명목 GNI(달러)	610	1,270	5,410	5,560	6,480	7,450	7,700	6,550	4,760	4,080
빈곤율(%)*	-	29.3	9.1	7.6	6.0	5.3	5.0	4.9	5.9	5.4
실업률(%)	11.8	7.3	5.6	5.4	5.2	5.0	4.9	5.0	5.0	5.0

주: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정한 빈곤선 기준(2017년 기준 165.7마나트).

자료: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검색일: 2018. 11. 14);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15) 2003~05년 카스피해의 샤흐-데니스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BTC(Baku-Tbilisi-Ceyhan)라인 건설이 진행되었음. 이종문(2007), pp. 167~168.

16)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다. 조지아

■ [경제 현황] 조지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금융위기 및 러시아와의 분쟁, 주변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동반침체를 경험했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교역 및 농업의 발전, BTC(Baku-Tbilisi-Ceyhan) 파이프라인 건설, 각종 개혁정책을 통해 2007년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조지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경제성장률이 -3.7%(2009년)까지 하락했으며, 2014년 이후 저유가 및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주변국 침체로 다시 경제성장이 둔화됨.¹⁷⁾
- 2017년에는 러시아 경제회복 등의 영향으로 해외수요와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5.5%, 2019년에는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¹⁸⁾
- 해외송금액 규모는 조지아 GDP의 12% 수준이며, 절반 이상(59%)이 러시아로부터 유입되고 있음(2017년).¹⁹⁾

표 11. 조지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2.5	9.6	6.2	7.2	6.4	3.4	4.6	2.9	2.8	5.0
명목 GDP(십억 달러)	3.1	6.4	11.6	14.4	15.8	16.1	16.5	14.0	14.4	15.2*
대외부채/GDP(%)	-	39.6	50.0	41.7	41.8	43.9	46.9	73.5	86.2	90.2
물가상승률(기간평균, %)	19.1	5.7	7.1	8.5	-0.9	-0.5	3.1	4.0	2.1	6.0
재정수지(GDP 대비 %)	-2.0	2.2	-4.8	-0.9	-0.8	-1.4	-1.9	-1.3	-1.6	-0.5
경상수지(GDP 대비 %)	-5.8	-11.1	-10.3	-12.8	-11.7	-5.8	-10.7	-12.0	-12.8	-8.9*
FDI 유입액/GDP(%)	-	7.1	7.5	7.5	5.2	5.9	10.6	11.9	24.6	12.3
수입(상품, 십억 달러)	1.0	2.6	5.0	6.7	7.7	7.7	8.3	7.0	6.7	7.4
수출(상품, 십억 달러)	0.5	1.4	2.4	3.2	3.5	4.2	4.0	3.0	2.9	3.6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0.1	0.5	2.3	2.8	2.9	2.8	2.7	2.5	2.8	3.0
환율(/\$)	2.0	1.8	1.8	1.7	1.7	1.7	1.8	2.3	2.4	2.5

주: * 기관 추정치.

자료: IMF, WEO database; IHS Marki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2. 4).

■ [경제 및 산업구조] 서비스업(도소매 포함)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광공업 부문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 GDP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66%로 도소매업이 가장 활발하며, 광공업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제조업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가 전체 제조업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비금속광물제품 제조와 1차 금속제품제조업이 각각 20% 내외임.

17) Beso Namchavadze(2018.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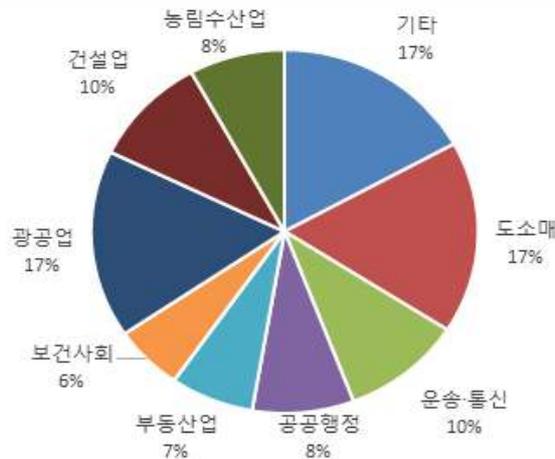
18) IMF(2018), pp. 25-28, p. 37.

19)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Bilateral Remittance Matrix 2017(검색일: 2018. 12. 7).

- 한편 농림수산업 부문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가족 단위 생산·보유분이 90% 내외로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²⁰⁾

그림 8. 조지아의 GDP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Georgia(검색일: 2018. 11. 18).

■ [교역] 조지아는 금속광물, 철강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광물성 연료에너지 및 기계류를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은 터키임.

- 2017년 총 교역액 중 터키와의 교역이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11.1%), 중국(8.8%), 아제르바이잔(8.2%)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조지아의 대터키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중국이 조지아의 3대 교역국이 되었음.
- 권역별로 CIS 국가에 대한 수출이 총 수출의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U로의 수출은 24% 수준이며, 두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 수입의 28~29%로 비슷한 규모임(2017).
-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조지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으나 2006년 러시아가 조지아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대러시아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 해당 조치 해제와 함께 교역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²¹⁾
- 러시아로의 주요 수출품은 음료·주류, 철강원자재 및 반제품이며, 수입품은 석유·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와 곡물 등임.
- 10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08년 80.4%에서 2017년 68.8%로 감소하여 수출 대상국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다른 코카서스 국가(아르메니아 85.8%, 아제르바이잔 71.9%)보다 낮은 수치로 조지아의 수출 대상국이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20) "Georgia's Livestock Breeding Potential"(2016. 9. 5).

21) 러시아는 조지아의 친서방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조지아의 핵심 수출품인 와인, 생수,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음. Vladimer Papava(2011), p. 56.

표 12. 조지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터키	17.6	1	러시아	14.5
2	아제르바이잔	13.7	2	아제르바이잔	10.0
3	우크라이나	9.0	3	터키	7.9
4	캐나다	8.8	4	아르메니아	7.7
5	아르메니아	8.3	5	중국	7.6
6	불가리아	7.1	6	불가리아	6.6
7	미국	6.8	7	우크라이나	4.6
8	멕시코	3.5	8	미국	4.5
9	영국	2.9	9	이란	2.8
10	프랑스	2.7	10	루마니아	2.8
상위 10개국 비중		80.4	상위 10개국 비중		68.8

표 13. 조지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2008			2017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터키	15.1	1	터키	17.2
2	우크라이나	10.8	2	러시아	9.9
3	아제르바이잔	10.0	3	중국	9.2
4	독일	7.1	4	아제르바이잔	7.6
5	러시아	7.0	5	우크라이나	5.6
6	중국	4.9	6	독일	5.4
7	UAE	4.5	7	아르메니아	3.5
8	미국	4.0	8	미국	3.4
9	이탈리아	3.0	9	이탈리아	2.7
10	투르크메니스탄	2.2	10	루마니아	2.4
상위 10개국 비중		68.7	상위 10개국 비중		66.9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 조지아의 수출품은 금속광물, 철강(원자재 및 반제품), 음료·주류 등 원자재 위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에너지 외에 기계류, 전자기기, 자동차 등 제조품 및 가공품이 주를 이룸.

표 14. 조지아의 주요 수출입품목(2017)

(단위: %)

	수출			수입			
	HS코드	품목	비중	HS코드	품목	비중	
1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15.6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5.3	
2	22	음료, 주류, 식초	15.3	84	보일러 기계류	9.1	
3	72	철강	13.5	87	일반차량	8.6	
4	87	일반차량	9.6	85	전기기기, TV, VTR	7.5	
5	30	의료용품	5.6	30	의료용품	4.9	
6	8	과실, 견과류	3.9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4.5	
7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3.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4	
8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2.8	73	철강제품	3.2	
9	31	비료	2.8	72	철강	2.2	
10	84	보일러 기계류	2.5	94	가구류, 조명기구	1.9	
기타			24.4	기타			39.3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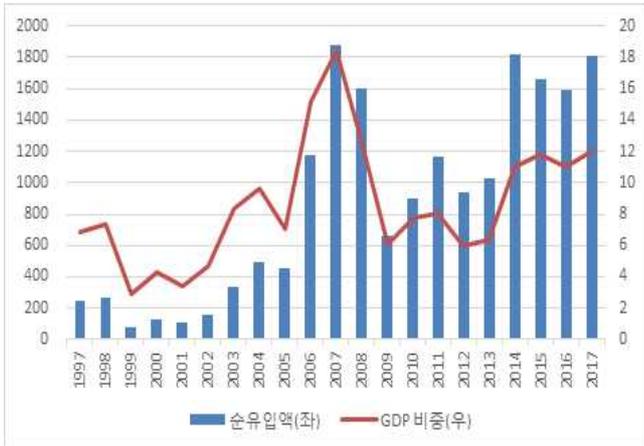
■ [투자] 조지아로 유입되는 FDI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 18억 달러를 달성함.

- 2017년 기준 FDI 순유입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다른 코카서스 국가(아르메니아 2%, 아제르바이잔 7%) 대비 FDI 유입이 활발함.
- 주요 투자 분야는 운송·통신, 금융, 건설업, 에너지 부문이며, 아제르바이잔(24.5%), 네덜란드(18.8%), 터키(15%), 영국(13.1%) 등이 주요 투자국임.

- 조지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²²⁾ 및 에너지 운송²³⁾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
- 에너지 부문 중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전력 수출을 통해 지역 내 전력시장 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²⁴⁾

그림 9. 조지아의 FDI 순유입액 추이(1997~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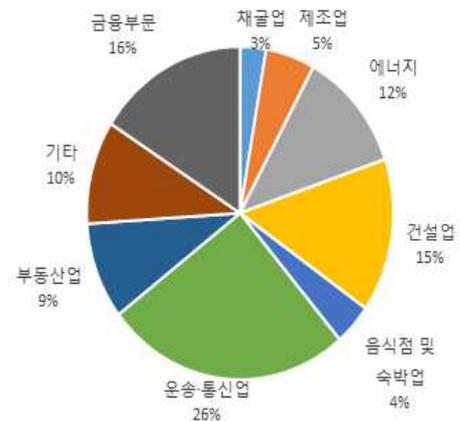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CEIC(검색일: 2018. 11. 14).

그림 10. 조지아 FDI 구조(2017년)

(단위: %)



자료: CEIC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검색일: 2018. 11. 14).

■ [사회지표]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빈곤율은 2010년 32.6%에서 2016년 17.1%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고, 실업률은 코카서스 3국 중 두 번째 수준으로 빈곤과 실업 문제는 향후 조지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²⁵⁾

표 15. 조지아의 주요 사회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인당 명목 GNI(달러)	750	1,410	3,000	3,300	3,870	4,240	4,490	4,120	3,830	3,790
빈곤율(%)	46.7	32.7	32.6	29.4	26.5	22.1	18.7	16.7	17.1	-
실업률(%)	10.3	13.8	16.3	15.1	15.0	14.6	12.4	12.0	11.8	-

주: 빈곤율 하루 3.2달러(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

자료: World Bank, Data(검색일: 2018. 9. 28).

22)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가 2017년 10월 완공된 바 있음. 민지영, 강부균(2012), pp. 7~8; Enterprise Georgia(검색일: 2018. 10. 11).

23) 바쿠-슈사 송유관,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송유관, 바쿠-트빌리시-에르주룸(BTE) 가스관 등을 통해 카스피해의 에너지 자원이 조지아를 거쳐 운송되고 있음. SOCAR, Transportation(검색일: 2018. 10. 11).

24) 조지아는 전체 수력발전 잠재력의 약 40%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2015년 기준). "TBC Capit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Georgian Energy Sector"(2015. 11. 30).

25) EIU(2018), p. 6.

3.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아르메니아

■ [수출지향적 산업화 추진] 협소한 내수시장과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해옴.

- 건설·도소매·서비스업 등 비교역재(nontradable)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 원자재 위주의 수출상품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메니아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높은 취약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냄.²⁶⁾
- 또한 인구 300만 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추진해옴.
 - 2011년에 발표한 ‘수출주도 산업정책을 위한 전략’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성장기반 마련, 경제구조 다각화, 수출지향 산업 발전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여섯 개의 집중 성장 부문(식품, 보건, 관광, 보석·다이아몬드, 하이테크, 경공업)을 지정함.
 - 궁극적으로는 아르메니아 경제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knowledge-based) 경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함.²⁷⁾

■ [2017-2022 정부 프로그램] 향후 경제발전전략으로 2017년 발표한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자유롭고 스마트한 아르메니아를 목표로 **공급주도(supply-led)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함.

- 아르메니아는 수출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급주도(supply-led)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경제를 다각화하고 EAEU 등 다자체제 및 양자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또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보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표 16. 2017-2022 정부 프로그램: 주요 경제발전전략

세부 분야	달성 목표	주요 내용
수출	- GDP 중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 달성 4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시장 확보 • 특혜체제(preferential regimes)하에 있는 EAEU 및 EU 시장 적극 활용 • EAEU 체제 내에서 다자간 무역협상(베트남, 중국, 이란 등) 참여 • 귀금속 품질보증에 대한 EAEU 회원국 간 상호 승인 • EAEU 공공조달체계 편입 및 가스·전기·운송 등에 대한 공동시장 조성 • 걸프국가 및 이란 등과 양자협정을 통한 특혜무역체제(일반특혜관세제도 포함) 유지 및 확대 등

26) World Bank(2015), p. 1.

27) World Bank(2015), p. 4, pp. 9-10.

표 16. 계속

세부분야	달성 목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촉진 러시아 시장 내 'Armzone(아르메니아 제품의 전자무역 플랫폼)' 도입 및 홍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절차 간소화 아르메니아 제품 수입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수출 제조 기업과 제품을 위한 전자 플랫폼 구축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Made in Armenia' 행사 개최 등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상위 20위 달성 GDP 중 외국인 투자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통계 수집·처리를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투자자 보호 및 보증 기관 강화 자유경제지역·공공민간파트너십·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 타깃 투자전략 아르메니아 개발 재단(Development Foundation of Armenia) 역량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그램 개발,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최소 5개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전략 개발 및 실행 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적, 혁신적 비즈니스 발전 2개 이상의 다국적 기구 R&D 연구소 유치, 첨단기술 기반 산업 지원

자료: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202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아르메니아 정부 홈페이지(검색일: 2018. 9. 30).

- 산업 부문에서는 △관광업 △에너지 인프라 및 천연자원 △농업 △운송 및 ICT △민간항공 △도시개발 6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함.
- 관련 법 정비 및 규제 개선, 정보의 전산화(통합 정보 네트워크 구축), 교역 확대, 최신 기술 도입과 시스템·설비의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17. 2017-2022 정부 프로그램: 주요 산업발전전략

세부 분야	달성 목표	주요 내용
관광업	- 연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개선 비자 면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관광 관련 교통수단의 쉬운 국경 통과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도입 현대적인 통합 관광 정보 네트워크 구축 기독교 순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전통 축제·기념행사·기타 관광행사 지원,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 국가로서의 아르메니아 위상 강화 관광 통계 개선을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Tourism Satellite Account) 시스템 도입 추진
에너지 인프라 및 천연자원	- 에너지 자립, 원자력 에너지 발전, 에너지원 다변화, 지역 통합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시장의 단계적 자유화 등 지역 내 새로운 교역시장 개척, 적극적인 수출 입정책 추진 최신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부문 발전 및 효율 조치 실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 아르메니아-이란, 아르메니아-조지아 간 400킬로볼트(kV)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수행 태양광·풍력·지열(KarKar 지역) 발전소 건설 추진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 관련 데이터 디지털화 식수·관개 개선 원자력 이용 분야의 위험성 감소

표 17. 계속

세부분야	달성 목표	주요 내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농업 부문 생산량 5% 이상 증가 - 식량안보 강화 (주요 식품의 자급률 2022년까지 75% 달성) - 고부가가치 농업 개발 및 최신 기술 도입 - 수입 대체,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육종, 어류 육종 부문 지속가능한 발전 • 종자 번식능력 강화, 다양한 비료 제공, 현대 기술을 접목한 기술집약적인 과수원 100헥타르 육성(2018년까지) • 현대적이고 수출지향적인 양어장 지원 • 예방접종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 지리적 데이터의 디지털화 •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한 농업 협력 촉진 • 농기계 현대화, 농업 부문 최첨단 기술 도입 • 농기계 정비소 건설, 점적관수 도입을 위한 대출금리 보조 등(2022년까지 10,000헥타르 도입) • 농업가공산업 지원 • 원료조달을 목적으로 한 대출 보조, 와인 제조 등록 및 경쟁력 향상 등 • 대출 접근성 증대, 농업보험제도 도입 • 산림보호 서비스 개선, 산림경영 효율성 제고, 산림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운송·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및 경쟁력 확보 - 도로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ICT 및 통신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 우편통신 시스템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인프라 및 서비스 발전 • 통일된 도로 노선 네트워크 구축, 택시 서비스 법규 개선, 기차 여객 수송 차량 현대화 등 • 도로의 품질과 안전 개선 • 도로자산관리 역량 강화, 도로건설 작업의 효율성 및 품질 증진, 도로교통 안전 보장 • ICT 및 통신 인프라 발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동 증진, ICT 보안 증진 • 경쟁력 있는 IT 또는 ICT 제품 브랜드 개발, IT 및 ICT 솔루션 적용 확대, 신규 ICT 인프라 개발, 정보보안·사이버보안·데이터보호를 위한 조치 • 우편통신 시스템 개선 및 민간투자 유치
민간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항공 운송 부문의 변화 및 발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라크(Shirak) 공항 개선 등을 통한 저가 항공사 유치 • 즈바르트노츠(Zvartnots) 공항 정규 화물운송 시작 • 아르메니아-EU 공동비행구역(Common Aviation Area) 추진 • 공역 개방(Free Route Airspace)정책을 통한 환승 항공편 확대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환경 개선, 투자 촉진,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계획 수립 • 투자 프로젝트 추진 • 예레반시 33블록, 구 예레반(Old Yerevan) 구역, 세반(Sevan) 반도·제르무크(Jermuk)·기우므리(Gyumri) 등 특별 규제 구역 및 개인 공동체 대상 •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 도시개발·허가 관련 전문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신기술 도입 및 적용 • CIS, EAEU, EU 시장과의 호환성 보장 • 건축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 및 유럽 관행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건설 부문의 과학기술 및 실험 연구소 확대 • 건물의 내진성 및 안전성 강화 • 로리(Lori), 시라크(Shirak), 아라가초튼(Aragatsotn) 주의 지진으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2022"(검색일: 2018. 9. 30)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이 외에도 아르메니아 정부는 스마트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어젠다'를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만이 아니라 공공행정 분야 개혁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호환 가능한 통일된 ICT 시스템 구축 및 실용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Shop)'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2018 정부 프로그램] 아르메니아는 2018년 니콜 파쉬냔(Nikol Pashinyan) 총리로의 정권 교체²⁸⁾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표했으나, 경제 및 산업 정책은 기존 '2017-2022 정부 프로그램'과 대부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 2018 정부 프로그램은 △반독점 및 시장경쟁 강화 △지하경제 타파 및 조세수입 증가 △소득분배·고용증대·빈곤 근절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하이테크·농업·관광업을 중점 발전 분야로 지정함.²⁹⁾
 - 조기 총선 등 국내 정치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의 분쟁 등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부패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또는 추진 일정 없이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에 각 사회·산업 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던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를 '하이테크(High-tech)' 부문으로 통합하여 우선 발전 분야로 선정한 것이 주목할 만함.
 -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국방·공공행정·농업·교육·보건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과의 접목, 기술 상용화, 첨단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하이테크 연구·생산·교육센터 설립 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 아제르바이잔

- [경제다각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제르바이잔은 경제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생산, 교역,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있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제수지와 비석유 부문의 적자, 금융 및 은행 부문의 불안이 심화되었음.
 - 이에 비석유 부문 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 국가 균형 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경제발전의 비전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옴.³⁰⁾
 - '지역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2004-2018)'과 '빈곤 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2008-2015)'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석유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함.
 - 2012년 12월 승인된 '아제르바이잔 2020'에서는 전통적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비석유 부문 발전전략으로 △비석유 가공 산업 발전(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 마련 △관광 인프라 및 농업 발전을 제시함.
-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하 로드맵)]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발표한 로드맵에서 향후 경제 발전전략으로 비석유 부문의 발전과 함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을 채택하고 있음.

28) 2018년 4월, 부패·정치적 탄압·높은 실업률 등 기존 정부의 실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세르지 사르키시안(Serzh Sargsyan)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한 반대로 시민혁명이 촉발되었고, 비폭력 반정부 시위를 통해 니콜 파쉬냔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됨.

29) "The Government Program of the Republic of Armenia"(2018. 6. 2).

30) ADB(2014), pp. 1-2.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성장전략을 병행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단기(2020년까지)적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기(2025년까지)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장기(2025년 이후) 목표로 사회복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 포용적 경제성장 달성을 제시함.
-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통화정책 도입, 공기업 민영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인적 자본 발전, 비즈니스 환경 개선임.
 -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비석유 부문에 대한 FDI 규모를 비석유 부문 GDP의 4%까지 확대, 비석유 부문 1인당 수출액 450달러 달성(2015년 기준 170달러), 제조업·관광업 등 상품 및 서비스 부문 일자리 15만 개 창출, 국영석유기금(SOFAZ)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25%로 감소(2017년 기준 37%)³¹⁾하고자 함.³²⁾

■ [비석유 및 사회경제 부문 발전전략]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비석유 부문과 교육, 금융, 공공 서비스 등 주요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했으며,³³⁾ 특히 물류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함.

- 각기 다른 경제 부문을 연결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지역 내 물류 및 무역의 허브로 성장하고자 함.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중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소비재 수입의존도 축소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으로의 교역망 확대 및 비석유 부문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표 18.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비석유 및 사회경제 부문 발전전략

분야	전략 목표
농업제품 생산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 관련 정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산물 및 관련 가공상품 생산능력 증대, 수입 대체, 민관 파트너십 구축, 기업식 농업 지원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 • 금융메커니즘 개선, 농업보험 도입, 투자 촉진 등 금융 접근성 제고 • 생산장비시장 발전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기계 및 장비, 종자, 비료, 사료, 식물 위생 및 수의학 관련 시장 발전, 관련 서비스 제공 • 교육·컨설팅 서비스 강화 • 환경 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후변화 등 충격에 대비 • 정부 규제의 효율성 제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전자 등록·회계·통계 시스템 구축, 규제 기관 및 담당자 역량 향상,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 등 • 고용 증가, 농촌 복지 향상
중소기업의 상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 및 규제 체계 개선 • 통합 중소기업 지원 기관 설립, 감독 및 허가 메커니즘 개선, 세제 개편, 중소기업 특화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등 • 금융 접근성 개선 • 중소기업 대출보증펀드 조성, 대체 금융상품시장 발전(선도, 선물, 옵션, 스와프, 요소 시장 등) •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중소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경제 부문별 수출조합 설립 • 지식 및 기술 역량 강화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지원,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여성 기업활동 촉진 • 혁신 촉진, 연구 및 개발 활동 강화

31) SOFAZ(2017), p. 41.

32) "Strategic Road Maps for National economy and Main Economic Sectors(검색일: 2018. 11. 18)", Vusal Musayev(2017), pp. 13-15.

33) 로드맵은 10개의 비석유 및 사회경제 부문과 더불어 전통적 산업으로 석유 및 가스(화학제품 포함) 분야 발전전략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비석유 부문에 대한 발전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함.

표 18. 계속

분야	전략 목표
중공업 및 기계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제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중앙 등록 및 관리 등 기존 자산 최적화 광업 및 야금산업단지 개발 등 경쟁 분야 발굴 대체 금융 메커니즘, 경험이전 촉진, 국제표준 준수 등 금융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쿠(Baku) 관광 잠재력 극대화 국가 관광 진흥 기구 설립, 바쿠 홍보 캠페인 실시, 관광 인프라 개발 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오락구역(Tourism Recreation Zones) 조성, 항공을 통한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향상 웰빙, 겨울 시즌, 문화, 비즈니스, 지속가능(농촌·생태) 관광상품 등 지역 관광상품 개발 교육, 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관광품질 시스템 구축
물류 및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물류 및 무역 허브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바쿠항 복합단지, 바쿠-트빌리시-카스 철도와 아스타라(이란)-아스타라(아제르바이잔) 철도 완공 중계 무역 강화 물류센터 설립, 지역 내 상업지역으로서 바쿠의 역할 강화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 정부기관(State Agency for Housing and Construction)의 전략 및 목표 설정 기관의 조직구조, 업무, 지원 범위, 주거 지원 목표 및 방안 결정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토지구획 및 소유권을 '주택건설 정부기관'으로 이전, 주택기금 수혜자 결정, 담보대출시장의 효율성 보장 등
직업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와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기반의 강력한 재정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국제 투자기금 확보, 성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등 노인을 위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대상 또는 산업 부문 수요를 반영한 부문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동적이고 견고한 금융 시스템 구축 은행의 자본화 및 역동성 보장, 부적격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보험시장 개발, 금융의 포용성 강화 투자자의 금융시장 접근성 증대, 은행 간 외환시장 확대 등 금융시장 발전 신용정보 교환 인프라 발전 규제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 금융기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도입, 금융 서비스 투명성 제고, 보험 규제 및 관리 강화 금융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 향상,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 및 이익 보호
정보통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구조 개선, ICT 강화 독립적인 규제 기관 설립, 통신시장 자유화, 모바일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기술교육 현대화, 디지털 결제 확대, 정부기관의 e-service 개선, ICT 분야 정보 및 기술 역량 강화, 교육 부문과 접목 정부 및 사회 환경의 디지털화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개선, 통합 전자의로 인프라 구축
공공 서비스 (전력, 난방, 수도,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규제 기관 설립 등 규제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보장 친환경 전기 생산 등 생산방식 다각화, 전력 수출 가능성 검토 효율 및 품질 기준 도입 발전소의 효율성 제고, 전기 에너지 손실 감소, 송전 및 배전 품질 개선, 효과적인 소비·판매 메커니즘 구축 등 효율적인 가스 유통 인프라 구축 음용수 및 폐수 인프라 확대 등 높은 수준의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수자원 손실 최소화 및 소비 효율 향상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난방 공급 인프라 구축

자료: "Strategic Road Maps for National economy and Main Economic Sectors"(검색일: 2018. 11. 18); Vusal Musayev(2017)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8년 4월, 4선 연임 대통령 취임식에서 '로드맵'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비석유 부문, 운송 인프라,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관련 정책들을 재확인하였으며, 더불어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함.³⁴⁾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교통 허브 및 북부 유럽과 남부 아시아를 연결하는 남북 교통 회랑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공항·철도·항구·도로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물류 및 운송 중심지로 성장하고자 함.
- 빈곤과 실업,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 향후 국가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과학의 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자 함.
- 아제르바이잔은 2018년 9월, 세 번째 아제르스페이스 2호(Azerspace-2)를 발사하는 등 우주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다. 조지아

■ [외국인투자 유치] 조지아는 취약한 산업기반과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FDI 등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함.³⁵⁾

-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창업·혁신 지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해옴.
- 그 결과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순위가 37위(2007년)에서 6위(2019년)로, 경제자유화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가 32위(2008년)에서 16위(2018년)로 상승함.³⁶⁾
- FDI 순유입액은 2009년 6억 6,000만 달러(GDP의 6%)에서 2017년에는 18억 달러(GDP의 12%)로 증가함.

■ [정부 프로그램 2018-2020] 정부는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을 채택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FDI 유치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 성장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2018년 6월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Giorgi Kvirikashvili) 전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마무카 바흐타제(Mamuka Bakhtadze)가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신임 총리는 향후 국정운영방안을 담은 '정부 프로그램 2018-2020'을 발표
-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외교 및 국방,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혁, 작은 정부, 교육, 인권 및 사회복지 등 다섯 개 분야에서 국정운영전략을 밝히고 있음.
- 각 부문 개혁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과제로 △유럽 및 유로-대서양 지역과의 완전한 통합 △민주적 기관 강화 △경제성장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간 균형 유지 △교육 개혁 △중소기업 지원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촉진 △세계경제와의 통합 등을 제시함.
-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 물류 및 무역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투자 신용등급 향상, 경쟁력 있는 산업 발굴, 법과 규제 개선, 무역개방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4) "Speech by Ilham Aliyev at the inauguration ceremony"(2018. 4. 18).

35) "Understanding Georgi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2013. 5. 11).

36) World Bank, Doing Business; Heritage Foundatio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18).

- 하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식·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함.
- 조지아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개편, 수출 지원,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수송 및 물류 허브로 자리잡고자 함.
- 또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우선 발전 부문을 선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³⁷⁾

표 19. 정부 프로그램 2018-2022: 주요 경제발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지역 내 물류 및 무역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항 건설 • 신규 고속도로 건설 가속화, 동서고속도로(East-West Highway) 주요 부분 건설 완료 • 현대적인 물류 센터 건설(트빌리시, 쿠타이시), 쿠타이시 공항 내 화물 터미널 건설 추진 • 새로운 운송 회랑 및 노선 개발을 위한 협상 지속(Trans-Caspian Transport Corridor 등) • 교통 및 운송 협력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nsit and Transport Cooperation)을 통해 여객 및 화물 운송 관련 행정절차 단순화 • 항공 자유와 정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항공사 진입, 직항 노선 추가 등 • 공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정보를 수집,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의 운송 및 화물 처리능력 증대 • 수출 증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 지속 • 터키와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FTA 추진, 인도·이스라엘·미국·걸프 지역 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개혁 • 조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비거주자는 개인소득세(PIT) 및 기업소득세(CIT) 면제 • 개인 저축연금제도로의 전환 등 연금제도 개혁 • 민관협력사업(PPP) 및 공공투자 관리 역량 강화 • 탈달러화(라리화)를 통한 국가 화폐 신뢰도 향상, 경제건전성 향상 • 품질 및 기술 이전을 위한 FDI 유치 • 실물 부문에 대한 양질의 투자 유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지식 및 기술 이전 지원 • 대기업의 조지아 이전, 하이테크 및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 발전
기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보호, 상업 및 세무 분쟁 관련 재판소 설립 추진 • 조세 시스템 개혁 • 현지 생산 촉진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과세제도 수립 • 기업 소득세 개혁, 부가가치세 자동 환급 • 디지털화 및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조세회피 감소와 공정한 세금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자동 세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EU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세 및 관세 시스템, 회사법 개정 • 온라인 등록 및 데이터 조정을 통한 소액대출 간소화, 온라인을 통한 기업 설립 및 계좌 개설 • 파산 및 회생 절차 개선, 민간 및 공공 부문 대화와 협력 보장 • 경제적 자유, 부패 방지, 공정한 사법 체계, 투명성 등 국제 평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실천
중소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e in Georgia'를 통해 국내 생산 촉진, 수출 장려, 투자 촉진 •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 수출보험 도입 •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용 보증방안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과세 도입(2018년 7월 1일) •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5%에서 1%로 인하, 중소기업의 소득기준치를 10만 GEL에서 50만 GEL로 상향 조정

자료: "Government Program for 2018-2020: Freedom, Rapid Development & Welfare"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조지아 정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10).

■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건설, 농업, 관광업을 우선 육성하고자 함.

- 조지아는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

37) "4 challenges to overcome: Acting Economy Minister presents economic development plan"(2018. 7. 13).

로 관광산업을 강조함.

- 수력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구축,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³⁸⁾
-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은 조지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정부는 관광객 유치, 신규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관광 인프라 개선정책을 통해 관광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³⁹⁾

표 20. 정부 프로그램 2018-2022: 우선 육성산업 및 세부 발전전략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에너지 효율화 조치 실시 • 천연가스 및 전기의 안전한 생산, 안정적인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1억~2.8억 평방미터 규모의 가스 저장소 건설 추진 • 조지아 전역에 가스 공급망 구축(2020년까지 130만 명에게 공급) • 통과국(transit)으로서의 기능 강화, 에너지 운송 및 교역 허브로 전환, 전력 수출 촉진 • 에너지 법안 개선 및 유럽 표준과의 통합 추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 법안 마련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 건설 허가, 시공, 보안, 건축가·엔지니어·건설업자 인증 등에 대한 법과 규율 마련 • 건설 자재의 품질 기준 수립을 위한 기술 규정 마련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등록부 및 지리정보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 토양의 비옥도 향상을 위한 조치, 방풍지역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 작물 저장, 분류, 포장, 가공, 배분 부문 발전 • 농업보험 및 농기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관개 및 배수 시스템 개발 및 개선,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안전한 식량 및 사료 확보, 수의사 육성, 식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유연한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EU 법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 •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도입 • 생물 보호지역 확대 및 생태 관광 촉진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 • 산림 유지, 보호, 복원 메커니즘 도입, 목재 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 수문 기상 관측 네트워크 확대, 국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대기·수질·토양 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대기오염 및 용수 사용량 측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 대규모 제조시설 및 차량에 유럽 기준의 배기가스 기준 도입 •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향상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관광 인프라 및 도로 인프라 정비, 관광명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해외 및 국내 대상 마케팅 활동 강화 • 보호지역 확장 및 생태 관광 촉진 • 컨벤션 부문 발전을 통한 비즈니스 관광 개발 • 투자 촉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기능 회의 및 전시장 조성 • 재교육, 관광 전문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한 서비스 인력의 품질 향상 • 연중 관광지 개발, 겨울 관광지 추가 개발 등

자료: "Government Program for 2018-2020: Freedom, Rapid Development & Welfare"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조지아 정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10).

38)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공사(K-water)가 조지아의 스와네티 지역에 수력발전 댐을 건설 및 운영하는 넨스크라 수력개발사업을 2015년 수주하여 추진하고 있음. "수자원공사 수주 넨스크라 수력사업에 조지아 정부기금 투입"(2018. 5. 31).

39) 2017년 기준 GDP의 9.3%, 고용의 7.8%가 관광 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WTTC, 2018), 서비스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음(Georgian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Georgian Tourism in Figures, 검색일: 2018.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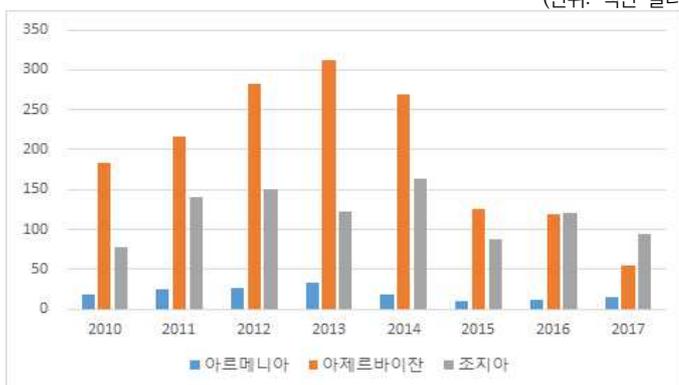
4. 한·코카서스 3국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의 교역은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총 교역액은 1억 6,000만 달러이며,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15% 수준임.
- 2013년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의 총 교역액은 4억 7,0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4%였으나 이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3년 4억 5,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이 2017년에는 1억 2,000만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 2017년 기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조지아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감소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이었던 아제르바이잔과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기인한 것임.
 - 아르메니아와의 교역량은 큰 변화 없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조지아는 한국의 126대 교역국, 아제르바이잔은 143대 교역국, 아르메니아는 177대 교역국임.
 - 한국은 조지아의 24대 수입국이자 27대 수출국, 아제르바이잔의 16대 수입국이자 70대 수출국, 아르메니아의 32대 수입국이자 34대 수출국임.

그림 11.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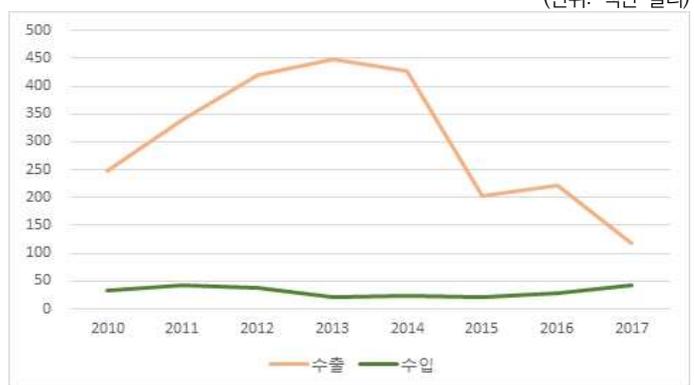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2. 4).

그림 12.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2. 4).

-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를 비롯한 기계류이며, 수입품은 비철금속제품과 광산물, 정밀화학원료, 의류 등임.
- 일반차량(HS87) 및 보일러 기계류(HS84) 수출은 약 7,000만 달러 규모로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58%, 2017년), 2013년 대비 금액 및 비중에서 크게 감소한 상황임.

- 2013년 일반차량 및 보일러 기계류 수출 규모는 약 3억 달러로 총 수출의 69% 수준이었음.
- 저유가로 인한 현지화 평가절하로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2015~16년 아제르바이잔의 자동차 수입이 크게 감소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EURO-4 기준 적용에 따른 중고차 수입 감소, 차량 구입 대출심사 강화 등도 영향을 미침.⁴⁰⁾

표 21.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주요 수출품목(2017년)

(단위: 천 달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품목명	HS코드	금액	품목명	HS코드	금액		
1	의료용품	30	1,296	일반차량	87	26,956	보일러 기계류	84	13,585		
2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1,208	보일러 기계류	84	14,592	일반차량	87	11,407		
3	일반차량	87	1,064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2,609	철강	72	8,802		
4	보일러 기계류	84	991	고무와 그 제품	40	2,347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5,912		
5	담배	24	843	의료용품	30	1,705	광물성 연료에너지	27	3,273		
총 수출			7,499	총 수출			53,310	총 수출			57,925

표 22.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주요 수입품목(2017년)

(단위: 천 달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순위	품목명	HS코드	금액	품목명	HS코드	금액	품목명	HS코드	금액		
1	의류(편물제 외)	62	5,077	전자기기·TV·VTR	85	340	동과 그 제품	74	16,556		
2	광·슬래그·회	26	1,426	각종 비금속 제품	84	151	무기화합물	28	12,257		
3	의류(편물제)	61	16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142	의류(편물제 외)	62	4,139		
4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90	9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73	연과 그 제품	78	896		
5	전자기기·TV·VTR	85	45	향료, 화장품	33	60	전자기기·TV·VTR	85	863		
총 수입			6,884	총 수입			885	총 수입			36,031

주: HSK 2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11. 9).

나. 투자

- 2010~17년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투자누적액은 1억 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해외투자의 0.04% 수준이며, 투자 신고건수는 58건으로 나타남.

40) KOTRA(2016b), 「아제르바이잔 자동차 및 부품 시장 동향」(2016. 12. 23, 검색일: 2018. 12. 4).

- 투자의 대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15년 수주하여 추진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임.

표 23.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투자동향(2010~17년)

(단위: 천 달러)

국가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	누적액
조지아	2011	3	276	101,836
	2012	1	25	
	2015	2	29,100	
	2016	1	32,370	
	2017	0	40,065	
아제르바이잔	2010	6	87	2,104
	2011	8	874	
	2012	5	38	
	2013	9	210	
	2014	6	213	
	2015	12	671	
아르메니아	2017	1	2,900	2,9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9).

- 한국기업은 아제르바이잔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16년 기준 14개의 기업이 건설·공사업, 도소매, 운수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⁴¹⁾
- 정부는 최근 아르메니아와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으며(2018. 10. 19.), 이를 통해 양국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투자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보상 △ 투자로 발생한 이득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⁴²⁾

다. 교류·협력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과 2007년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국빈방한 외에 한국과 코카서스 3국 정상 간 직접적인 교류는 부재한 상황이나, 양자 간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정부는 코카서스 3국과 양자 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최해옴.
 - 아르메니아와는 2005년, 2011년, 2014년 외교통상부 유럽국장과의 아르메니아 외교차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 아제르바이잔과는 2009년, 2015년, 2017년 외교부 차관보와 아제르바이잔 외교차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 조지아와는 2012년부터(2017년 제외) 매년 외교통상부 유럽국장과의 조지아 외교차관 간 정책협의회 개최
- 아제르바이잔에는 대사관과 KOTRA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관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음.

41) KOTRA(2016a), pp. 523~525.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경우 정확한 한국기업 통계가 발간되지 않고 있음.

42) 동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 후 발효될 예정임. 외교부 보도자료(2018. 10. 19).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코카서스 지역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 등 정보통신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6년 아제르바이잔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통신,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전자정부 구축 등), 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옴.⁴³⁾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내 직업훈련센터와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KOICA 무상원조를 통해 토양오염정화, 상하수도 등 물 관련 복합사업, 개발컨설팅 및 다양한 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및 기업이정신 제고, WTO 가입 및 이행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실시한 바 있음.⁴⁴⁾
 - 아르메니아에서는 KOICA 지원 사업으로 2010~11년 국회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개선(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수행
 - 조지아와는 특별한 유무상 협력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표 24. 한국의 대코카서스 3국 원조 현황

구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비고
KOICA 무상원조 (1991~2016 누적액)	282	5,658	-	(단위: 만 달러)
EDCF (1987~2016 누적액)	-	15,096*	-	(단위: 백만 원)

주: EDCF 지원금은 집행금액 기준.

자료: KOICA(2017);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통계보고서(검색일: 2018. 11. 9).

- 한국정부는 또한 코카서스 3국이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⁴⁵⁾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국으로 2011년부터 매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력 및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와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함.⁴⁶⁾

■ 민간 부문 인적교류 지표 중 하나로 한국의 코카서스 3국 관광객 수가 최근 조지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조지아 방문 한국인은 2016년 3,100여 명에서 2017년 6,3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1~10월 10개월간 1만 2,000명을 초과하여 전년동기대비 124.7% 성장하였음.⁴⁷⁾

4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pp. 76~103.

44) KSP 홈페이지, 사업추진현황(검색일: 2018. 12. 4).

45)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는 1992년 설립된 지역경제기구로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터키, 러시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세르비아 12개국이 회원국임.

46) 외교부 보도자료(2016. 11. 22).

47) Georgian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Research, Georgian Tourism in Figures(검색일: 2018. 11. 11).

5. 시사점

■ 코카서스 3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산업 분야 현안과제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은 [표 25]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원자재 의존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산업화를 통한 경제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대체로 광물자원 의존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음료·주류 등 조제 식료품 중심의 제조업을 다각화 및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기반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의존 경제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산업 육성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런 배경 아래 코카서스 3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문에서 양자·다자 차원의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표 25 참고).
- 3국 모두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는 전통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한편 잠재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바, 국별 우선 육성 분야를 고려한 특화된 양자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3국이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수출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운송·물류 인프라 개발에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역내외 양자·다자 차원의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표 25. 코카서스 3국의 경제산업 분야 현안과제와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

	현안과제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
아르메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 원자재(광물) 의존 수출구조 다각화 - 경공업(조제 식료품) 위주의 제조업 다각화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수출지향적 산업화 추구: 수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 - [중점 육성 분야] 전통 수출산업(광업, 금속가공, 농식료품 제조업 등), 신성장동력 및 연계발전 산업(농업기계), 재생에너지, 운송물류 인프라, 관광, ICT, 도시환경건축 등) - [지원 방안]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전자 플랫폼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R&D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아제르바이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의존 경제구조 다각화 - 산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비에너지 부문 발전 기반 질적 성장 추구: 비에너지 부문 투자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중점 육성 분야] 석유가스(화학) 산업 고도화, 중공업기계 제조, 농산품 생산가공, 관광, 운송물류 인프라, ICT 등 - [지원 방안]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금융 접근성 강화, 스타트업 및 R&D 지원, 물류센터 설립, 직업교육훈련, 전자정부 구축, 공공 서비스 개선 등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광물), 조제 식료품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 개선 - 해외자본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경제발전 추구: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수출산업 육성 - [중점 육성 분야] 운송물류 인프라, 농업기계, 에너지(수력발전), 건설, 관광, ICT 등 - [지원방안]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투자 환경 개선: 중소기업 특혜세율 적용, 금융 접근성 향상, 공공행정 및 물류 시스템 디지털화 등

자료: 저자 작성.

- 코카서스 3국은 국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독립 이후 산업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협력 모멘텀을 유지 및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코카서스 3국은 공통적으로 수출산업화와 경제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동안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경제협력이 매우 미미한 가운데서도 전자정부 구축 등 정보통신 협력을 비교적 활발히 추진해왔으나, 이들 3국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교류양성 등 보다 심도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통관물류 체계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교환학생 및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ODA 자금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한·코카서스 3국의 상호 협력 수요를 고려한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과 단기 및 중장기적인 협력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 양자 차원에서 정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관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코카서스 3국은 국가 특성상 여전히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간 논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국별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 교역은 주로 한국이 자본재·소비재를 수출하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산업간 무역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교역여건 개선, 심리적·행정적 간접비용 감소, 산업협력 증진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뿐 아니라 중부 및 서부 북방유라시아경제권과 터키, 유럽, 중동 등 잠재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코카서스 3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하나 이들 3국의 지정학적 기회요인을 고려하여 주변 시장으로의 연계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요구됨.
 - 특히 아르메니아의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인바, EAEU와의 협력 활성화를 고려한 양자간 교역,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관계부처 협동.
- 국회사무처. 2015. 「한·체코·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결과보고서」.
- 민지영, 강부균. 2012. 「조지아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제12-2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 염동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2017.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4. 「아제르바이잔 개황」.
- _____. 2016. 「흑해연안 국가에 한국 ICT·전자정부 확대한다.」. 보도자료. (11월 22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2780(검색일: 2018. 11. 19).
- _____. 2018.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 서명.」. 보도자료. (10월 19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667(검색일: 2018. 12. 4).
- 이종문. 2007.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안보와 외국인투자 분석」. 『슬라브연구』, 제23권 1호.
- KOICA. 2017. 「국별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지원실적('91-'16년)」.
- KOTRA. 2016a. 『201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상권)』.
- _____. 2016b. 「아제르바이잔 자동차 및 부품 시장 동향」. (12월 23일). <http://www.emerics.org/www/business.do?systemcode=04&action=detail&brdctsno=204757>(검색일: 2018. 12. 4).
- 「수자원공사 수주 넌스크라 수력사업에 조지아 정부기금 투입」. 2018. 『글로벌이코노믹』. (5월 31일).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53109113925984f58a467e8_1&md=20180531155044_K(검색일: 2018. 10. 11).

[영문자료]

- ADB. 201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zerbaijan 2014-2018: Economic Development in Azerbaijan.”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linked-documents/cps-aze-2014-2018-sd-02.pdf>.
- Beso Namchavadze. 2018. “The Economic History of Independent Georgia.” *Forbes Georgia*. (January 22)
- BP.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7th edition. (June).
- EIU. 2018. “Georgia.” *Country Report 4th Quarter*.
- Government of Georgia. “Government Program for 2018-2020: Freedom, Rapid Development & Welfare.” http://gov.ge/index.php?lang_id=ENG&sec_id=41&info_id=67105(검색일: 2018. 10. 10).
- IMF. 2018.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November 18)
- Irina Guruli. 2013. “Understanding Georgi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 *Democracy&Freedom Watch*. (May 11). <https://dfwatch.net/understanding-georgias-foreign-direct-investment-trends-81030-19920>(검색일: 2018. 10. 12).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2018. “Speech by Ilham Aliyev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발표자료. (April 18). <https://en.president.az/articles/28071>(검색일: 2018. 11. 16).
-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rmenia. “Statistical Yearbook of Armenia 2017(System of National Accounts).” <https://www.armstat.am/file/doc/99504388.pdf>(검색일: 2018. 8. 11).

- Stratfor. 2018. "In the Caucasus, Competition Will Limit Cooperation."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caucasus-competition-will-limit-cooperation>(검색일: 2018. 12. 5).
- SOFAZ. 2017. "Annual Repor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7-2022." <http://www.gov.am/en/gov-program/>(검색일: 2018. 9. 30).
- Vladimer Papava. 2011. "The Evolution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Georgia and Russia in the Post-soviet Period: Past Trend and Perspective." *Russia and Georgia Searching the Way Out*. Carnegie Moscow Center.
- Vusal Musayev. 2017. "Azerbaijan Economic Reforms Review." EREFORMS(Center for Analysis of Economic Reforms and Communication).
- World Bank. 2015. "Export-Led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Implementation Review and Recommendations on New Toolset."
- World Travel&Tourism Council(WTTC). 2018.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Georgia." "Georgia's Lovestock Breeding Potential." 2016. *The Financial*. (September 5)
- "Strategic Road Maps for National economy and Main Economic Sectors" <http://www.e-qanun.az/framework/34254>(검색일: 2018. 11. 18).
- "TBC Capit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Georgian Energy Sector." 2015. *Caucasus Business Week*. (November 30). <http://cbw.ge/economy/tbc-capital-investment-opportunities-in-georgian-energy-sector/>(검색일: 2018. 10. 11).
- "The Government Program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8. *News.am*. (June 2). <https://news.am/arm/news/454516.html>(검색일: 2018. 10. 2).
- "4 challenges to overcome: Acting Economy Minister presents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8. AGENDA.GE. (July 13). <http://agenda.ge/en/news/2018/1492>(검색일: 2018. 10. 12).

[기타 자료]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m/maps/place/%EC%BA%85%EC%B9%B4%EC%8A%A4+%EC%82%B0%EB%A7%A5/@42.6550529,38.8461359,6z/data=!4m5!3m4!1s0x4045154111440455:0x33ed9a8810ece47e8m2!3d42.6366153!4d44.157621>(검색일: 2018. 12. 5).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통계보고서. <https://www.edcfkorea.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2004001>(검색일: 2018. 11. 9).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8. 11.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9).

KSP 홈페이지. 사업추진현황. <http://www.ksp.go.kr/pageView/info?listCount=10&page=0&srchText=&nationCd=AZ>(검색일: 2018. 12. 4).

CEIC. <https://insights.ceicdata.com>(검색일: 2018. 11. 14).

CIA Factbook. <https://www.cia.gov/index.html>(검색일: 2018. 12. 5).

EIU. <http://data.eiu.com>(검색일: 2018. 9. 23).

- Enterprise Georgia. <http://www.enterprisegeorgia.gov.ge/en/invest-in-georgia>(검색일: 2018. 10. 11).
- Georgian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Georgian Tourism in Figures. <https://gnta.ge/statistics/>(검색일: 2018. 11. 11).
-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index/download>(검색일: 2018. 11. 18).
- IHS Markit. <https://connect.ihs.com/home>(검색일: 2018. 12. 4).
- IMF. WEO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8. 12. 4).
-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Georgia. <http://geostat.ge>(검색일: 2018. 11. 18).
- SOCAR. Transportation. <http://www.socar.az/socar/en/activities/transportation/baku-novorossiysk-oil-pipeline>, (검색일: 2018. 10. 11).
-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https://www.stat.gov.az/?lang=en>(검색일: 2018. 11. 14).
- UN Comtrade.(검색일: 2018. 9. 3; 12. 4).
-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18. 9. 28).
- _____. Migration and Remittances Data. “Bilateral Remittance Matrix 2017.” <http://www.worldbank.org/en/topic/migrationremittancesdiasporaissues/brief/migration-remittances-data> (검색일: 2018. 12. 7).
- _____.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검색일: 2018. 11. 18).